

## 대학생의 진로개발과 취업준비에 대한 인식 연구

박기문\* · 이규녀\*\*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개발과 취업준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진로개발 활동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입학 시부터 학생 스스로가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체계 수립이 요구되어 진다 이는 대학 교육과정에서 진로개발 과목이 교양필수로 포함하여야 하고 취업준비센터 등의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성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이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활용되어 질 수 있는 대학생 커리어 포트폴리오(career portfolio)를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를 통하여 대학생의 커리어가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한다면 대학경쟁력 강화에 기초가 될 것이다

셋째, 대학생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직업기초능력의 수준 진단을 통해 개인별 학과별 진로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개인별학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 졸업생의 취업 준비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진로개발 지원책이 필요하다

넷째, 고등교육단계의 대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만족도 전공 선택, 현재 대학에서의 진로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인식도(M=2.86)는 대학에서의 학습과 일과의 연계성 있는 체계구축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대학 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취업 및 자기개발 역량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학 내 진로서비스 기관의 진단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확보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제어 : 대학생, 진로개발, 취업준비**

---

\* 박기문,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전임연구원

\*\* 교신저자 : 이규녀(knlee@cnu.ac.kr),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기술연구소 전임연구원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에서의 기업 인적자원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는 구조조정  
의 상시화, 평생직장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유지탈락 등이  
특정 계층이 직면하는 과제가 아니라 누구나 체감하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노정란 외,  
2008). 최근 직업세계로의 이행 전 단계인 국내 대학의 교육환경은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대  
학수학능력의 한계, 입학학생의 학과 부적응 등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앞서 대학  
에 입학하려는 학생의 경우 중등단계에서 자기의 이해를 통한 진로 선택보다는 부모교사, 성  
적에 의해 자발적 선택보다는 주변 환경에 의한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하는 경우로 인해 개인  
의 진로개발이 대학단계로 전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의 부재와  
고학력 추세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결정의 시기가 대학으로 연기되고 있는 점 등은 대학에서  
의 진로지도를 더욱 필요로 하는 원인이 된다(이정근, 1988). 이러한 가운데 산업체에서는 가  
치를 창출해 내는 지식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의 직업기초능력을 보유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어, 대학단계에서 진로개발과 취업준비 등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종전까지와는 다른 인  
적자원과 직업세계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개인적 수준에서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약 20  
년은 직업준비, 30년은 직업생활 유지, 나머지 20년은 은퇴생활 향유라는 생애 설계 개념이 점  
차 설명력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직업생활의 유지 기간을 연장하고 전 생애에 걸쳐  
제2의 삶, 제3의 삶을 개척하는 과업이 시대적 요구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이 직면한 환경과 학습의 준비 정도 직업 경험, 육체·정신적 성숙과 노화 등을 총체적  
으로 고려하여 직업세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Tolbert(1980)는 어떤 직업과 진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발휘의 기회 인간관  
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관계 거주지 등 생활  
의 모든 측면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되고 개인의 생활양식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인  
생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 진로교육이 도입된 후 진로교육의 이론적 측면이  
나 실천적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지만대학교육 단계에서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기예  
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경험해 왔다 예전에는 학부모·교사·일반 국민이 대학 입학자체가  
학습단계에서 고민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또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를 졸업하고 일생동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학생들과 학부모가 요구하고 있고 학교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 만으로 그 책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특히, 고등교육단계에서 대학 입시에만 열중하  
였던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벗어나 홀로서기와 직업세계의 준비에 대한 막연한 판단으로 자기

개발과 직업탐색에 관한 진로 개발과 취업 준비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래의 진로교육 단계에 있어서 초등단계에서는 진로 인식중학교에서는 진로 탐색,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준비 대학에서는 진로 전문화라는 도식적인 관점에 대하여, 대학생들에게 진로개발과 취업준비에 따른 인식을 분석함으로 대학교육에서의 진로개발과 취업준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더불어 진로 경로와 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수요로 하는 기관들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별 대학생의 학과 만족도, 진로계획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한다.

둘째, 배경변인별 대학생의 취업준비와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한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계획에 대한 진로계획 수립 여부, 방향, 참여에 대한 실제성을 조사·분석한다.

## 3.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진로

진로(career)는 직업 뿐 아니라 일과 다른 역할 즉 가정 지역사회, 여가를 통합할 뿐만 아니라 직업 전 그리고 직업 이후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Herr & Cramer, 1996; 진미석, 2003; 재인용). 즉 사람의 삶 중에 '일'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준비 형성 및 축적, 향후 전개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 나. 진로개발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은 변화하는 고용시장에서 자신의 일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탐색(제공), 목표설정과 계획 수립 체계적인 준비와 실행,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한다(진미석, 2003).

## 4. 연구의 제한점

대학생의 진로개발과 취업준비에 대한 인식 조사와 분석은 다양한 학교와 학과 등을 대상으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가 필수적임을 인정하면서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전 소재의 O대학교의 3개 대학, 5개 학과에 다니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와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에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대학생의 진로 개발과 취업준비에 대한 인식 분석의 일반적 특성 염출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진로와 진로개발

진로(career)는 "수레가 다니는 길을 따라간다(to roll along on wheels)"라는 말을 의미하는 'ecaro'라 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와 개념이 활용되는 맥락 관련된 주요 대상에 따라서 "직업, 생애, 경력, 진로"라는 다양한 용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중 학문분야별 개념은 <표 1>과 같이 개념화하고 있다.

<표 1> 학문분야별 진로 정의

학문분야	진로 정의	내용
심리학	직업	어떤 직업에 맞는 안정적 성격특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보는 전통적 관점
	자아실현의 수단	경력이 개인의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성장이 어떻게 조직과 사회에 도움을 주는가에 초점을 두는 관점
	개인 생애구조의 한 요소	인간은 자신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라 연령별로 단계를 거치는 생애구조를 가지며, 직업을 통한 일은 생애단계의 중요요소가 됨
사회심리학	개인에 의해 중개된 외부 역할 메시지에 대한 반응	특정 직업 환경(예, 성직자, 과학자, 엔지니어 등)의 심리적 영향을 연구하는 관점
사회학	사회적 역할의 전개	사회질서에 대한 개인의 상호 호혜적 기여를 중심으로 경력을 정의
	사회적 이동	한 개인의 직업을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는 관점
인류학	통과지위	경력을 역사적으로 사회와 문화를 유지하는 의례의식의 하나인 통과지위로 보는 관점

경제학	시장의 힘에 대한 반응	한 개인의 직업을 단기적으로는 고용기회의 분배의 결과로 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중심으로 정의
정치학	자기이해의 실현	정치제도의 현실에서 권력 부, 지위, 자율권 등의 개인욕구를 개인 이해 추구 행동의 대표적 목표로 보는 견해
역사학	역사적 결과의 상호관계	저명인사와 시대적 사건이 서로 미치는 영향에 관심
지리학	지리적 환경에 대한 반응	원자재의 가용성, 자연항구, 노동 및 통상 인력의 존재 등의 지리적 환경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둠

자료출처 : 노정란 외(2008). 직업진로지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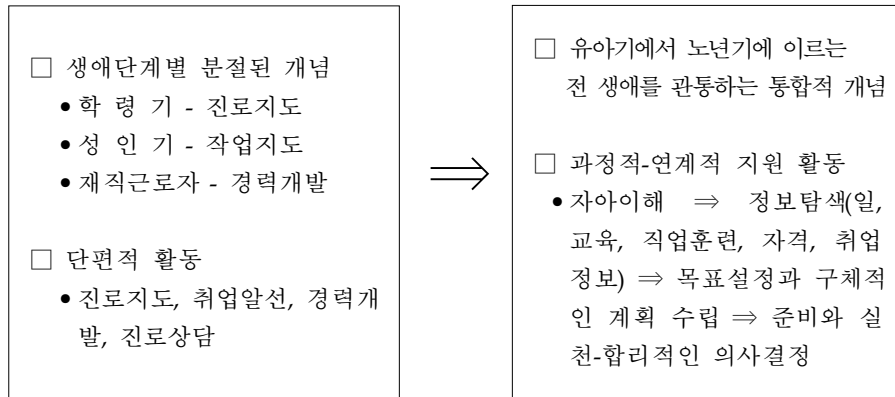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은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이해, 가치관, 흥미, 재능, 기술 등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고교육적·직업적 기회를 탐색하도록 지원해 주며 일터의 현실에 대하여 알고 그곳에서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진로 단계별로 건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NOICC, 1996, 진미석, 2004; 재인용). 진로개발은 진로지도(career guidance)를 포괄하는 의미로, 경력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진로지도는 주로 학령기 대상으로 진로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교육을 받기 위한 적절한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선택한 직업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을 말한다 진로지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개인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관련이 있고 좁은 의미로는 어떤 종류의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학교 및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와 같은 직업과 관련된 선택이다. 조직적인 진로지도가 시작된 것은 1907년 미국의 F. 파슨즈에 의해서였다. 초기에는 직업지도로써 취직에 관한 지도소개를 그 내용으로 했고, 진학에 관한 지도는 학업지도 또는 수업지도로 달리 불렀다 그러나 학문의 방향이나 학교선택에 관한 진학지도는 결국은 직업의 준비라고 보아, 직업지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진로지도는 1970년대 이후 진로교육·생애교육의 도입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으로 직업안정뿐 아니라 직업적 발달과 적응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브리태니커, 2009).

최근에는 가능한 한 조기에 포괄적 개념 발달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며 진로지도와 경력개발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진로개발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장석민(1998)은 '직업진로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진로지도 진로교육, 학교에서의 직업지도와 진학지도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진학지도만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포괄적인 진로지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 생애단계에서 변화하는 자신의 일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탐색(제공), 목표설정과 계획 수립 체계적인 준비와 실행,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진로개발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진미석, 윤희현, 2004), 진

로개발의 개념 적용은 [그림1]과 같다.



[그림 1] 진로개발의 개념

출처 : 진미석, 윤형환(2004). 성인의 진로개발체제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 대학생의 진로개발과 취업준비

최근 고등교육 진학률이 <표 2>와 같이 80%를 넘어서는 등 교육의 양적 공급이 풍부한 상태이고 대학교육기회의 대폭 확대는 풍부한 인적자원 배출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함께 질적 성장을 기대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대학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장창원 외, 2005, p. 316).

<표 2> 연도별 고교 졸업자에 대한 진로 추이

연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무직(%)	미상(%)
2001	736,171	518,638(70.5)	143,858(19.5)	807(0.1)	27,158(3.7)	45,710(6.2)
2002	670,713	497,483(74.2)	114,429(17.1)	649(0.1)	19,605(2.9)	38,547(5.7)
2003	590,413	470,702(79.7)	79,121(13.4)	367(0.1)	13,780(2.3)	26,443(4.5)
2004	588,550	478,402(81.3)	65,810(11.2)	660(0.1)	17,910(3.0)	25,768(4.4)
2005	569,272	467,508(82.1)	52,852(9.3)	734(0.1)	26,565(4.7)	21,613(3.8)
2006	568,055	466,248(82.1)	47,118(8.3)	699(0.1)	37,028(6.5)	16,962(3.0)
2007	571,357	472,965(82.8)	35,680(6.2)	695(0.1)	47,778(8.4)	14,239(2.5)
2008	581,921	487,509(83.8)	33,470(5.8)	1,175(0.2)	54,221(9.3)	5,546(1.0)

출처: 교육통계 연구센터(<http://std.kedi.re.kr/index.jsp>). 자료 재구성.

또한, 대학 졸업생의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부 수준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생의 진로교육에 관해서는 국가진로교육전문위원회(2006)의 평생진로 활성화 5개년 계획으로 ① 대학의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 기능을 강화, ② 대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③ 직업·직장체험 프로그램의 내실화 ④ 대학생 진로개발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른 국가 수준 대학 진로개발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표 3>과 같다.

<표 3> 국가 수준의 대학 진로개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여대생 특화 진로교육 과정 개설 지원 사업	여대생커리어개발 센터 지원 사업
추진주체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목적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직업지도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선별적 지원을 통해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대학의 자발적 노력 강화를 유도	여대생의 조기 진로탐색을 유도하고, 직업의식을 제고하여 여대생의 경력개발 및 취업 활성화 도모	대학 내 여대생을 대상으로 직업설계, 직업능력개발, 직업체험 등 진로개발부터 취업지원까지 one-stop 커리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추진기간	2006~현재	2006~현재	2003~현재
지원 학교	2006년 96개 대학 2007년 171개 대학 2008년 205개 대학	2006년 8개 대학 2007년 24개 대학 2008년 40개 대학	2003~2005년 5개 대학 2006년부터 12개 대학 지원
주요 사업내용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관련 사업 전반(직업진로개발프로그램 운영, 취업 활동지원 프로그램 사업인프라 구축프로그램)	여대생 특화 진로·직업교육 관련 교양교육과정 개설·운영 지원 (학점 이수 필수)	센터별로 여대생 커리어개발 표준모델에 따라 학교 특성에 따른 여대생 경력개발 프로그램 기획·운영

출처 : 진미석, 윤희한(2003). 성인의 진로개발체제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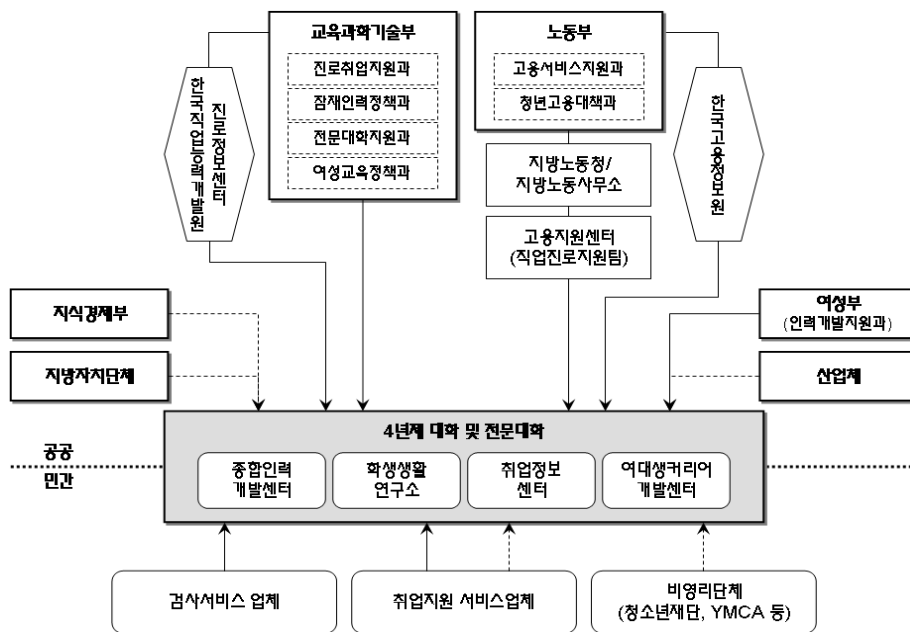
대학생의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각 대학마다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취업 및 진로서비스 부설기관을 예로 들 수 있다<표 4> 참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취업정보센터 또는 학생생활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취업정보망을 운영하는 대학도 다수에 이르고 있다(진미석, 2005).

<표 4> 대학 내 진로개발 및 취업지도 관련 기관 유형 분포

유형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종합인력개발센터	38	35.2	47	37.6
취업정보센터	52	48.1	59	47.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3	2.8	22	17.6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5	23.1	77	61.6
경력개발센터	1	0.9	15	12.0
기타	26	24.1	31	24.8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7). 진로교육지표조사

이와 같이 종합인력개발센터, 취업정보센터, 학생생활연구소,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과 같은 대학 내 진로지도 기관은 대학생 진로지도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학 내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민간 기구이므로 국·공립학교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나 노동부 어느 부처와도 행정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볼 수 없다(노경란 외 2008). 그러나 많은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관련 정책을 통하여 지급되는 각종 지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대학 내 진로서비스 기관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진로취업지원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체제는 [그림 2]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2]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체제

주 : — : 행정적인 관계, → : 직접적인 관계, .....> : 부분적인 관계

자료 : 임인, 장홍근, 윤형한(2005). 직업진로교육의 실태와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외국의 사례에서는 진로개발과 진로지도에 있어서 고등교육과정에서의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례보다는 연구, 교육, 실무위주의 대학 등의 교육체제의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미국·영국·독일 등의 선진 국가에서는 진로지도를 중등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선진 주요 국가에서는 산학연계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장창원, 2005).



### Ⅲ. 연구 방법

#### 1. 설문 조사 대상

이 연구에서의 표집은 모집단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비확률적 표집 방법 중 하나인 가용표집(available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표집 방법은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을 반드시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표 5>과 같이 외적 타당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소재 O대학교의 3개 대학, 5개 학과를 대상으로 표집 하였다. 총 215부의 설문지를 현장 조사하여 100%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20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5> 설문지 배포/회수율

대상	배포 수	회수 매수	분석 매수	유효분석비율(%)
대학생(명)	215	209	209	97.21

응답한 설문 인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표 6> 설문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49.80
	여	50.20
	합계	100
학년	1학년	97.60
	2학년	0.50
	4학년	1.90
	합계	100
학과	아시아 매니지먼트대학(A학과)	9.10
	아시아 매니지먼트대학(B학과)	10.00
	보건복지대학(C학과)	12.00
	보건복지대학(D학과)	37.30
	호텔외식조리대학(E학과)	31.60
	합계	100
출신고	인문계고	85.60
	전문계고	11.00
	기타	3.30
	합계	100

## 2. 설문 조사 도구

이 연구의 설문조사 도구는 최동선(2005)이 개발한 대학생의 진로지도 체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배경변인 학과만족도, 취업전망, 직업기초능력의 학습,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참여 실태, 취업준비,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 진로계획/취업준비로 배경변인을 제외한 7가지 영역으로 설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개발된 조사도구는 진로지도 관계자와 진로교육 전문가 등 5명에게 자문을 실시하여 수정·보완하였다(<표 7> 참조).

<표 7> 진로개발 및 취업준비 설문조사 도구

영역	전공 선택	문항 번호
배경변인	학년, 전공학과(학부), 성별, 연령, 출신 고등학교 유형	
학과만족도	학과(전공)에 대한 만족	1
	배우는 전공내용에 대한 만족도	2
	학과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3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4
	대학 및 학과로부터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5
취업전망	졸업 후 취업 및 창업에의 유용성에 대한 만족도	6
직업기초능력의 학습	학과의 향후 5년간 취업전망	7
정규수업이외의 교육 참여 실태	대학에서의 수업이 직업기초능력의 개발에 도움을 주는 정도	8
진로계획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외의 참여 여부 정도	9
	참여의 유용성(취업, 업무수행 등)	10
	졸업 후 진로계획 고려 여부 및 졸업 후 진로계획	11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진로개발 역량에 대한 인식	12-20
	자기이해를 심화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	12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13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학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14
	자신의 진로정보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평가·활용	15
	사회, 경제적인 환경변화가 개인의 삶과 직업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예측	16
	긍정적인 조직문화의 형성과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태도와 습관	17
진로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	18	
진로계획의 실천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19	
구직 및 직업유지·전환 등을 위해 요청되는 역량 강화	20	
취업 후 진로에 대한 자신감	21	
취업준비	희망하는 분야로의 취업을 위한 준비여부	22
	취업준비 행동	23-29
	취업 준비를 위해 외국어 학습	23
	취업 준비를 위해 컴퓨터 관련 학습	24
	취업 준비를 위해 취업 희망 분야 학원 수강	25
취업 준비를 위해 직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	26	

영역	전공 선택	문항 번호
	취업 준비를 위해 취업박람회에 참가	27
	취업 준비를 위해 취업준비 특강 및 세미나 참가	28
	취업 준비를 위해 이력서 및 면접시험 준비	29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	진로지도 서비스 경험 여부 및 만족도	30-38
	대학에서의 진로상담 서비스에 대해 만족	30
	대학에서의 심리검사 서비스에 대해 만족	31
	대학에서의 취업관련 특강 및 세미나 참여서비스의 만족	32
	여러 가지의 취업정보 이용 및 구직 신청 서비스의 만족	33
	대학에서의 학교의 취업 전산망 서비스의 만족	34
	대학에서의 학과에서 제공하는 진로 서비스의 만족	35
	대학에서의 진로 및 취업준비 교과목 수강의 만족	36
	대학에서의 구체적인 취업준비 방법에 관한 특강 서비스의 만족	37
	대학에서의 인턴십 등 현장체험학습 안내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서비스의 만족	38
	경험한 지도지도 서비스 운영기관의 유형	
진로계획/취업준비	졸업 후 진로계획 수립 방향, 서비스 경험	39~43

### 3. 자료 수집과 분석

이 설문지의 배포와 수집은 대전 소재 O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담당과목 교수의 협조를 구하여 현장 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14.0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로 이용한 통계 방법은 빈도, 백분비, 평균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배경변인별 진로개발 및 진로계획에 대한 인식 분석

#### 가. 학과별 진로개발 및 진로계획에 대한 인식

학과별 진로개발과 진로계획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8>에서 나타나듯이, 학과만족도(M=3.59), 정규교육외의 진로 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M=3.44), 5년간 취업전망(M=3.36), 진로계획과 5년간 취업전망(M=3.36), 정규교육외의 진로 교육프로그램 참여의 유용성(M=3.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한 학생들이 향후 졸업 후 희망 직업으로 취업하기 위한 준비가 적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사 대상의 학과가 D학과(의료사회복지), E학과

(외식산업)와 같이 특성화되어 있는 경우에 학과 만족도 취업전망, 대학수업이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도움 정도 정규교육외의 진로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비교적 높은 평균이 나온 반면, A학과(경영), B학과(리더십)의 경우에는 뚜렷한 특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C학과(스포츠건강관리)는 정규교육외의 진로 교육프로그램외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표 8> 학과별 진로개발 및 진로계획에 대한 인식

영역	전공학과	N	M	SD
학과 만족도	A 학과	19	3.579	0.692
	B 학과	21	3.190	0.512
	C 학과	25	3.320	0.476
	D 학과	78	3.654	0.641
	E 학과	66	3.742	0.640
	합계	209	3.589	0.638
5년간 취업전망	A 학과	19	2.842	1.214
	B 학과	21	2.619	0.740
	C 학과	25	3.080	0.909
	D 학과	78	3.487	0.977
	E 학과	66	3.697	0.992
	합계	209	3.359	1.033
대학수업이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도움정도	A 학과	19	2.947	0.970
	B 학과	21	2.905	0.768
	C 학과	25	3.040	0.611
	D 학과	78	3.615	0.743
	E 학과	66	3.545	0.727
	합계	209	3.392	0.796
정규교육외의 진로 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	A 학과	19	2.789	1.475
	B 학과	21	3.048	0.973
	C 학과	25	3.680	1.108
	D 학과	78	3.462	1.089
	E 학과	66	3.621	0.957
	합계	209	3.435	1.104
정규교육외의 진로 교육프로그램 참여의 유용성	A 학과	19	3.000	1.155
	B 학과	21	2.952	0.805
	C 학과	25	2.880	1.013
	D 학과	78	3.321	0.960
	E 학과	66	3.182	0.943
	합계	209	3.158	0.970
진로계획	A 학과	19	3.263	0.733
	B 학과	21	3.429	0.598
	C 학과	25	3.240	0.436
	D 학과	78	3.295	0.626
	E 학과	66	3.500	0.588
	합계	209	3.364	0.606

<표 9>에서는 학과별 개체간 효과 검정 결과로 학과만족도 5년간 취업전망, 대학수업이 직

업기초능력에 미치는 도움 정도 정규교육외의 진로 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의 4개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정규교육외의 진로 교육프로그램 참여의 유용성과 진로계획의 2개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학과명에서 나타나듯이 비교적 특성화된 학과와 그렇지 못한 학과에 대한 차이로 분석이 되며 향후 대학에서는 특성화된 학과와 비특성화된 학과를 구분하고 이에 맞는 자체 진로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측면에서 유용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생들이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9> 학과별 개체간 효과 검정

구분	영역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학과만족도	7.028	4	1.757	4.620	0.001***
	5년간 취업전망	27.341	4	6.835	7.160	0.000***
	대학수업이 직업기초 능력에 미치는 도움 정도	17.286	4	4.321	7.696	0.000***
	정규교육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	14.913	4	3.728	3.189	0.014*

\* $p < .05$ , \*\*\* $p < .001$

#### 나. 출신고별 진로개발 및 진로계획에 대한 인식

출신고별 진로개발 및 진로계획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0>과 같이 학과만족도(M=3.59), 정규교육외의 진로 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M=3.44), 5년간 취업전망(M=3.36), 진로계획과 5년간 취업전망(M=3.36), 정규교육외의 진로 교육프로그램 참여의 유용성(M=3.16)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고 대학생들은 학과만족도(M=3.60)가 높는데 반해 정규교육외의 진로 교육프로그램 참여 유용성(M=3.16)은 낮게 나타났다. 전문계고 대학생들의 학과만족도 및 5년간 취업 전망(M=3.52)은 비교적 높았으며, 정규교육외의 진로 교육프로그램 참여 유용성(M=3.26)은 낮게 나타났다. 기타 출신고 대학생들은 학과만족도와 진로계획은 보통이상(M=3.43)이었고, 이외의 영역에서는 인문계고와 전문계고를 졸업한 학생과 달리 모두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기타 출신고 학생들(검정고시 등)에 대한 특성 및 대학과 학과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대학생들과 대학생 이후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lt;표 10&gt; 출신고별 진로개발 및 진로계획에 대한 인식

영역	유형	N	M	SD
학과만족도	인문계고	179	3.603	0.657
	전문계고	23	3.522	0.511
	기타	7	3.429	0.535
	합계	209	3.589	0.638
5년간 취업 전망	인문계고	179	3.358	1.031
	전문계고	23	3.522	1.082
	기타	7	2.857	0.900
	합계	209	3.359	1.033
대학수업이 직업기초 능력에 미치는 도움정도	인문계고	179	3.402	0.761
	전문계고	23	3.565	0.788
	기타	7	2.571	1.272
	합계	209	3.392	0.796
정규교육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	인문계고	179	3.469	1.062
	전문계고	23	3.391	1.340
	기타	7	2.714	1.254
	합계	209	3.435	1.104
정규교육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유용성	인문계고	179	3.156	0.970
	전문계고	23	3.261	1.054
	기타	7	2.857	0.690
	합계	209	3.158	0.970
진로계획	인문계고	179	3.369	0.617
	전문계고	23	3.304	0.559
	기타	7	3.429	0.535
	합계	209	3.364	0.606

<표 11>과 같이 출신고별 개체간 효과 검증에서는 대학수업이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도움 정도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학교육에서 검정고시 등의 대학 입학자(2.714)들이 인문계고(3.469)나 전문계고 졸업자(3.391)보다 대학수업이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도움정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lt;표 11&gt; 출신고별 개체간 효과 검증

구분	영역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대학수업이 직업기초 능력에 미치는 도움정도	5.422	2	2.711	4.418	0.013*

\* $p < .05$

#### 다. 성별 진로개발 및 진로계획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 및 진로계획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2>에서 나타나듯이, 학과만족도(M=3.59), 정규교육외의 진로 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M=3.44), 대학수업이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도움정도(M=3.39), 진로계획과 5년간 취업전망(M=3.36), 정규교육외의 진로 교육프로그램 참여의 유용성(M=3.16)순으로 나타났다. 남/여 모두가 정규교육외의 진로 교육프로그램 참여의 유용성에 대해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평균을 보였다. 성별 진로개발 및 진로계획에 대한 성별에 따른 개체간 효과검정 결과는 전 영역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2> 성별 진로개발 및 진로계획에 대한 인식

영역	성별	N	M	SD
학과 만족도	남	104	3.510	0.623
	여	105	3.667	0.645
	합계	209	3.589	0.638
5년간 취업 전망	남	104	3.269	1.117
	여	105	3.448	0.940
	합계	209	3.359	1.033
대학수업이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도움정도	남	104	3.317	0.862
	여	105	3.467	0.721
	합계	209	3.392	0.796
정규교육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	남	104	3.519	1.140
	여	105	3.352	1.065
	합계	209	3.435	1.104
정규교육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유용성	남	104	3.135	1.005
	여	105	3.181	0.938
	합계	209	3.158	0.970
진로계획	남	104	3.413	0.617
	여	105	3.314	0.593
	합계	209	3.364	0.606

## 2. 배경변인별 취업준비와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분석

### 가. 학과별 취업준비와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에 대한 인식

학과별 취업준비와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 응답 결과는 <표 13>에서 나타나듯이, 취업준비(M=2.86),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M=2.86)가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1학년 재학단계에서 취업 준비와 이에 따른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에 대한 고려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 단계에서 1학년부터 진로 설계와 개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인식 못하는 전략의 부재와 취업하려는 업종 및 분야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교 측에서도 진로개발과 관련된 각종 계획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대학생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학생이 입학 시점부터 학생 개인별 진로개발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다양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국가·지역·사회, 대학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취업준비와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홍보 계획 수립과 운영이 절실하다.

<표 13> 학과별 취업준비와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 인식

영역	전공학과	N	M	SD
취업준비	A 학과	19	2.895	0.737
	B 학과	21	2.905	0.768
	C 학과	25	2.760	0.663
	D 학과	78	2.756	0.668
	E 학과	66	2.985	0.668
	합계	209	2.856	0.685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	A 학과	19	2.895	0.737
	B 학과	21	2.905	0.768
	C 학과	25	2.760	0.663
	D 학과	78	2.756	0.668
	E 학과	66	2.985	0.668
	합계	209	2.856	0.685

### 나. 출신고별 취업준비와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에 대한 인식

<표 14>와 같이 출신고별 취업 준비와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에 대한 응답 결과는 취업준비(M=2.86),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M=2.86)가 보통 이하(M=3.0)로 나타났으며, 출신고별 개체간 효과 검정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인문계고·전문계고와는 다르게 기타 출신고 대학생들의 취업준비와 진로 및 취업지



도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보통 이상(M=3.14)으로 나타났다. 기타 출신고 대학생들이 학과만족도와 진로계획을 제외한 영역에서 보통이하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보면 기타 출신고 학생들이 취업 준비와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는 정규교육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보다는 비교적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향후 모든 학생들이 적시적으로 자기 주도하에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과 진로상담 심시검사, 진로 및 취업준비 교과목 수강 등의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14> 출신고별 취업준비와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 인식조사

영역	유형	N	M	SD
취업준비	인문계고	179	2.855	0.688
	전문계고	23	2.783	0.671
	기타	7	3.143	0.690
	합계	209	2.856	0.685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	인문계고	179	2.855	0.688
	전문계고	23	2.783	0.671
	기타	7	3.143	0.690
	합계	209	2.856	0.685

#### 다. 성별 취업준비와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에 대한 인식

<표 15>에서 나타나듯이 성별 취업 준비와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에 대한 응답 결과는 취업준비(M=2.86),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M=2.86)로 모든 학과가 보통이하(M=3.0)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개체간 효과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앞서 <표 12>에서처럼 진로계획은 보통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앞으로 희망하는 분야로의 취업을 위한 준비와 이에 따른 실천적 행동인 외국어/컴퓨터 관련 학습, 학원 수강, 직장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등에는 낮은 평균을 보였다 또한, 대학의 진로지도 서비스 경험 여부 및 만족도 이에 따른 각 종 서비스 지원도 평균이하의 인식을 보여 적극적이고 실천 중심의 진로지도 서비스가 절실함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진로지도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5> 성별 취업준비와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 인식조사

영역	성별	N	M	SD
취업준비	남	104	2.904	0.704
	여	105	2.810	0.666
	합계	209	2.856	0.685
대학의 진로 및 취업지도 서비스	남	104	2.904	0.704
	여	105	2.810	0.666
	합계	209	2.856	0.685

### 3. 대학생의 진로계획에 대한 진로계획 수립 여부, 방향, 참여에 대한 실제성

#### 가. 학과별 대학생의 진로계획에 대한 진로계획 수립 여부, 방향, 참여에 대한 실제성

<표 16>에서 나타나듯이 학과별 진로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확실하지 않지만 계획이 있다(78.85%), 계획이 전혀 없다(10.53%), 확실한 계획이 있다 및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5.26%)순으로 나타났으며, <표 17>에서는 앞으로의 진로계획에서 취업이 43.15%로 가장 높았고 해외유학, 개인사업(창업), 대학원 진학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뚜렷한 목표설정과 계획을 가지고 학업과 취업 등을 준비하기 보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지며 자기 스스로의 진로개발을 위한 목표설정이 요구되어 진다 또한 원하고자 하는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취업을 위해서 대학 입학 시부터 진로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이러한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및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표 16> 학과별 진로계획 수립 여부

(단위: 빈도, %)

구분	A 학과	B 학과	C 학과	D 학과	E 학과	합계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1(5.26)	1(4.76)	3(12.00)	3(3.85)	4(6.06)	12(5.74)
계획이 전혀 없다	2(10.53)	2(9.52)	1(4.00)	3(3.85)	0(0.00)	8(3.83)
확실하지 않지만 계획이 있다	15(78.95)	14(66.67)	20(80.00)	69(88.46)	49(74.24)	167(79.90)
확실한 계획이 있다	1(5.26)	4(19.05)	1(4.00)	3(3.85)	13(19.70)	22(10.53)
합계	19(100)	21(100)	25(100)	78(100)	66(100)	209(100)

<표 17> 학과별 진로계획 방향

(단위: 빈도, %)

구분	A 학과	B 학과	C 학과	D 학과	E 학과	합계
대학원진학	4(13.33)	0(0.00)	2(5.56)	21(16.15)	3(2.80)	30(8.75)
해외유학	10(33.33)	11(27.50)	6(16.67)	30(23.08)	32(29.91)	89(25.95)
편입학	3(10.00)	6(15.00)	2(5.56)	4(3.08)	4(3.74)	19(5.54)
취업	10(33.33)	14(35.00)	17(47.22)	63(48.46)	44(41.12)	148(43.15)
개인사업(창업)	2(6.67)	4(10.00)	5(13.89)	6(4.62)	16(14.95)	33(9.62)
군 입대	0(0.00)	2(5.00)	2(5.56)	1(0.77)	1(0.93)	6(1.75)
기타	1(3.33)	3(7.50)	2(5.56)	5(3.85)	7(6.54)	18(5.25)
합계	30(100)	40(100)	36(100)	130(100)	107(100)	343(100)

※ 복수 응답 문항임.

<표 18>에서는 학과별 취업 준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로 취업하려는 분야의 미결정(23.08%)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음(23.0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이나 해

외 유학 고려(22.38%), 취업에 대한 자신감 결여(15.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대학과 학과 선택보다는 성적 등 외부적 환경에 의한 선택이 우선시됨으로 대학생이 된 상태에도 진로개발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의 학교체제로 인해 학생들의 진로개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등단계로 전이가 됨으로 인해 진로교육이 중등단계에서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18> 학과별 취업 준비하지 않는 이유

(단위: 빈도, %)

구분	A 학과	B 학과	C 학과	D 학과	E 학과	합계
취업하려는 분야의 미결정	7(28.00)	10(31.25)	9(30.00)	26(23.64)	14(15.73)	66(23.08)
취업준비 의욕의 상실	2(8.00)	1(3.13)	3(10.00)	5(4.55)	5(5.62)	16(5.59)
취업에 대한 자신감 결여	1(4.00)	3(9.38)	4(13.33)	22(20.00)	14(15.73)	44(15.38)
대학원이나 해외유학 고려	7(28.00)	8(25.00)	6(20.00)	25(22.73)	18(20.22)	64(22.38)
취업할 의도가 없음	0(0.00)	0(0.00)	0(0.00)	1(0.91)	3(3.37)	4(1.40)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음	6(24.00)	7(21.88)	8(26.67)	24(21.82)	21(23.60)	66(23.08)
기타	2(8.00)	3(9.38)	0(0.00)	7(6.36)	14(15.73)	26(9.09)
합계	25(100)	32(100)	30(100)	110(100)	89(100)	286(100)

※ 복수 응답 문항임.

<표 19>에서 나타나듯이 학과별 진로지도 서비스 경험에 관한 응답 결과는 경험이 없다(54.6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는 취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보다는 공급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진로지도의 서비스 경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지며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조차도 홍보 부족이나 진로지도 과목과 연계성 부족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표 20>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지원 기관에 대한 응답 결과로 학교나 기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보다는 기업(1.90%)가 높게 나타나, 학생들의 개인적 네트워크(부모형제, 선배, 동문 등)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표 19> 학과별 진로지도 서비스 경험

(단위: 빈도, %)

구분	A 학과	B 학과	C 학과	D 학과	E 학과	합계
진로상담	2(2.35)	15(14.29)	3(2.16)	31(6.67)	30(8.38)	81(7.03)
심리검사	10(11.76)	11(10.48)	15(10.79)	48(10.32)	45(12.57)	129(11.20)
취업관련 특강 및 세미나 참여	2(2.35)	4(3.81)	10(7.19)	63(13.55)	18(5.03)	97(8.42)
여러 가지의 취업 정보 이용 및 구직신청	0(0.00)	0(0.00)	2(1.44)	7(1.51)	6(1.68)	15(1.30)
학교의 취업 전산망 이용	0(0.00)	1(0.95)	4(2.88)	7(1.51)	12(3.35)	24(2.08)
학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3(3.53)	2(1.90)	8(5.76)	31(6.67)	19(5.31)	63(5.47)

진로 및 취업준비교과목 수강	5(5.88)	1(0.95)	12(8.63)	26(5.59)	12(3.35)	56(4.86)
구체적인 취업준비 방법에 관한 특강	0(0.00)	1(0.95)	3(2.16)	7(1.51)	4(1.12)	15(1.30)
인턴십 등 현장 체험학습 안내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6(7.06)	5(4.76)	7(5.04)	11(2.37)	14(3.91)	43(3.73)
경험이 없다	57(67.06)	65(61.90)	75(53.96)	234(50.32)	198(55.31)	629(54.60)
합계	85(100)	105(100)	139(100)	465(100)	358(100)	1152(100)

※ 복수 응답 문항임.

<표 20> 학과별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 서비스 경험 기관 유형

(단위: 빈도, %)

구분	A 학과	B 학과	C 학과	D 학과	E 학과	합계
학생상담연구소	3(17.65)	3(15.00)	4(14.29)	21(21.43)	17(24.64)	48(20.69)
취업지원센터/취업업무부서	2(11.76)	1(5.00)	4(14.29)	6(6.12)	3(4.35)	16(6.90)
종합인력개발센터	0(0.00)	4(20.00)	5(17.86)	10(10.20)	6(8.70)	25(10.78)
학과/단과대학의 취업지원센터	3(17.65)	2(10.00)	6(21.43)	15(15.31)	14(20.29)	40(17.24)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0(0.00)	2(10.00)	1(3.57)	14(14.29)	5(7.25)	22(9.48)
민간 취업서비스 기관	1(5.88)	0(0.00)	0(0.00)	6(6.12)	0(0.00)	7(3.02)
기타	8(47.06)	8(40.00)	8(28.57)	26(26.53)	24(34.78)	74(31.90)
합계	17(100)	20(100)	28(100)	98(100)	69(100)	232(100)

※ 복수 응답 문항임.

#### 나. 출신고별 대학생의 진로계획에 대한 진로계획 수립 여부, 방향, 참여에 대한 실제성

<표 21>에서는 출신고별에 따른 진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응답 결과로 진로계획 수립 여부에 관해서는 전문계고를 졸업한 대학생(17.39%)이 인문계고를 졸업한 대학생(10.40%)보다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진로계획의 방향으로는 출신고에 상관없이 취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에 취업과 함께 유학 및 해외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취업하려는 분야의 미결정에서 전문계고 졸업생(5.15%)보다 인문계고 졸업생(24.18%)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준비 의욕의 상실 측면에서는 전문계고 졸업생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 지도 및 취업 지도 서비스 경험 기관의 유형에서 학생상담연구소 활용 정도는 전문계고 졸업생(32.14%)이 인문계고 졸업생(20.0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학과/단과대학의 취업지원센터 활용에서 있어서는 인문계고 졸업생이 높게 나타났고 기타 항목에서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표 21> 출신고별 대학생의 진로계획에 대한 진로계획 수립 여부, 방향, 참여에 대한 실제성

(단위: 빈도, %)

구분		인문계고	전문계고	기타	합계
진로계획 수립 여부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5(2.89)	0(0.00)	0(0.00)	5(2.48)
	계획이 전혀 없다	6(3.47)	2(8.70)	0(0.00)	8(3.96)
	확실하지 않지만 계획이 있다	144(83.24)	17(73.91)	6(100)	167(82.67)
	확실한 계획이 있다	18(10.40)	4(17.39)	0(0.00)	22(10.89)
	합계	173(100)	23(100)	6(100)	202(100)
진로계획 의 방향*	대학원진학	24(8.08)	4(11.76)	2(16.67)	30(8.75)
	해외유학	78(26.26)	7(20.59)	4(33.33)	89(25.95)
	편입학	17(5.72)	1(2.94)	1(8.33)	19(5.54)
	취업	129(43.43)	16(47.06)	3(25.00)	148(43.15)
	개인사업(창업)	28(9.43)	3(8.82)	2(16.67)	33(9.62)
	군 입대	5(1.68)	1(2.94)	0(0.00)	6(1.75)
	기타	16(5.39)	2(5.88)	0(0.00)	18(5.25)
	합계	297(100)	34(100)	12(100)	343(100)
취업 준비 하지 않는 이유*	취업하려는 분야의 미결정	59(24.18)	5(15.15)	2(22.22)	66(23.08)
	취업준비 의욕의 상실	12(4.92)	4(12.12)	0(0.00)	16(5.59)
	취업에 대한 자신감결여	38(15.57)	5(15.15)	1(11.11)	44(15.38)
	대학원이나 해외유학 고려	55(22.54)	6(18.18)	3(33.33)	64(22.38)
	취업할 의도가 없음	3(1.23)	1(3.03)	0(0.00)	4(1.40)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음	56(22.95)	8(24.24)	2(22.22)	66(23.08)
	기타	21(8.61)	4(12.12)	1(11.11)	26(9.09)
	합계	244(100)	33(100)	9(100)	286(100)
진로지도 서비스 경험유형 *	진로상담	68(17.04)	10(16.95)	3(21.43)	81(17.16)
	심리검사	106(26.57)	18(30.51)	5(35.71)	129(27.33)
	취업관련 특강 및 세미나 참여	51(12.78)	7(11.86)	1(7.14)	59(12.50)
	여러 가지의 취업정보 이용 및 구직신청	4(1.00)	3(5.08)	0(0.00)	7(1.48)
	학교의 취업전선망 이용	17(4.26)	2(3.39)	0(0.00)	19(4.03)
	학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51(12.78)	10(16.95)	2(14.29)	63(13.35)
	진로 및 취업준비교과목수강	51(12.78)	5(8.47)	0(0.00)	56(11.86)
	인턴십 등 현장체험학습 안내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15(3.76)	0(0.00)	0(0.00)	15(3.18)
	경험이 없다	36(9.02)	4(6.78)	3(21.43)	43(9.11)
합계	399(100)	59(100)	14(100)	472(100)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 서비스 경험기관 유형*	학생상담연구소	38(20.00)	9(32.14)	1(16.67)	48(21.43)
	취업지원센터/ 취업업무부서	15(7.89)	1(3.57)	0(0.00)	16(7.14)
	종합인력개발센터	18(9.47)	3(10.71)	0(0.00)	21(9.38)
	학과/단과대학의 취업지원센터	36(18.95)	2(7.14)	0(0.00)	38(16.96)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17(8.95)	4(14.29)	0(0.00)	21(9.38)
	민간 취업서비스 기관	5(2.63)	1(3.57)	0(0.00)	6(2.68)
	기타	61(32.11)	8(28.57)	5(83.33)	74(33.04)
	합계	190(100)	28(100)	6(100)	224(100)

※ \* : 복수 응답 문항임.

#### 다. 성별 대학생의 진로계획에 대한 진로계획 수립 여부, 방향, 참여에 대한 실제성

<표 22>는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계획 등에 관한 응답결과로 남학생(15.31%)이 여학생(6.73%)보다 확실한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진로계획의 방향에 관해서는 해외 유학을 원하는 경우가 남학생(18.75%)보다 여학생(32.34%)이 높았으나, 개인사업(창업)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높았다. 진로지도 서비스 경험 유형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관련 특강이나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항목에서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표 22> 성별 대학생의 진로계획에 대한 진로계획 수립 여부, 방향, 참여에 대한 실제성

(단위: 빈도, %)

구분		남	여	합계
진로계획수립 여부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	4(4.08)	1(0.96)	5(2.48)
	계획이 전혀 없다	4(4.08)	4(3.85)	8(3.96)
	확실하지 않지만 계획이 있다	75(76.53)	92(88.46)	167(82.67)
	확실한 계획이 있다	15(15.31)	7(6.73)	22(10.89)
	합계	98(100)	104(100)	202(100)
진로계획의 방향*	대학원진학	14(8.75)	16(8.74)	30(8.75)
	해외유학	30(18.75)	59(32.24)	89(25.95)
	편입학	8(5.00)	11(6.01)	19(5.54)
	취업	70(43.75)	78(42.62)	148(43.15)
	개인사업(창업)	21(13.13)	12(6.56)	33(9.62)
	군 입대	5(3.13)	1(0.55)	6(1.75)
	기타	12(7.50)	6(3.28)	18(5.25)
합계	160(100)	183(100)	343(100)	
취업준비 하지 않는 이유*	취업하려는 분야의 미결정	34(25.95)	32(20.65)	66(23.08)
	취업준비 의욕의 상실	8(6.11)	8(5.16)	16(5.59)
	취업에 대한 자신감 결여	18(13.74)	26(16.77)	44(15.38)
	대학원이나 해외유학 고려	22(16.79)	42(27.10)	64(22.38)
	취업할 의도가 없음	3(2.29)	1(0.65)	4(1.40)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음	32(24.43)	34(21.94)	66(23.08)
	기타	14(10.69)	12(7.74)	26(9.09)
합계	131(100)	155(100)	286(100)	
진로지도서비 스 경험 유형*	진로상담	37(17.13)	44(17.19)	81(17.16)
	심리검사	58(26.85)	71(27.73)	129(27.33)
	취업관련 특강 및 세미나 참여	21(9.72)	38(14.84)	59(12.50)
	여러 가지의 취업정보 이용 및 구직신청	2(0.93)	5(1.95)	7(1.48)
	학교의 취업 전산망 이용	13(6.02)	6(2.34)	19(4.03)
	학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31(14.35)	32(12.50)	63(13.35)
	진로 및 취업준비 교과목 수강	23(10.65)	33(12.89)	56(11.86)
	인턴십 등 현장체험 학습 안내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12(5.56)	3(1.17)	15(3.18)
	경험이 없다	19(8.80)	24(9.38)	43(9.11)
합계	216(100)	256(100)	472(100)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 서비스 경험 기관유형*	학생상담연구소	20(18.52)	28(24.14)	48(21.43)
	취업지원센터/취업업무부서	8(7.41)	8(6.90)	16(7.14)
	종합인력개발센터	11(10.19)	10(8.62)	21(9.38)
	학과/단과대학의 취업지원센터	17(15.74)	21(18.10)	38(16.96)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11(10.19)	10(8.62)	21(9.38)
	민간 취업서비스 기관	3(2.78)	3(2.59)	6(2.68)
	기타	38(35.19)	36(31.03)	74(33.04)
	합계	108(100)	116(100)	224(100)

※ \* : 복수 응답 문항임.

##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개발과 취업준비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진로개발 활동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입학 시부터 학생 스스로가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교육체계 수립이 요구되어 진다 설문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뚜렷한 목표설정과 계획을 가지고 학업과 취업 등을 준비하기 보다는 막연한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89.4%)으로 분석되어지며, 자기 스스로의 진로개발을 위한 명확한 목표설정이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각 학교의 취업준비센터 등의 기관들이 진로지도 역할도 중요하지만 진로개발 과목이 교육과정에 교양필수로 포함하여야 하고 취업준비센터 등의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성이 요구된다 즉 진로개발 교육과정을 통하여 취업준비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 마련과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이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활용되어질 수 있는 대학생 커리어 포트폴리오(career portfolio)를 학점이나 졸업장과 함께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써 인정하는 커리어 포트폴리오 학점 인정 제도가 필요하다 대학생 커리어 포트폴리오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 재학 중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core competencies)의 수준발달과정과 자신의 수준과 진로에 맞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과정을 기록하여 효과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이를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를 통하여 대학과정과 대학 졸업 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e-HRD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대학생의 커리어가 지속적으로 관리·유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객관적 평가 자료가 획득하여 진로개발에 반영하면 대학경쟁력 강화에 기초가 될 것이다

셋째, 대학생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직업기초능력의 수준 진단을 통해 개인별학과별 진로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개인별학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표 11>에서 나타나듯이 대학수업이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도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진미석 외(2008)는 모든 전공에 걸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대학생들의 공통핵심역량인 직업기초능력(core competencies)의 수준을 측정·평가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 졸업생의 취업 준비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진로개발 지원책이 필요하다

넷째, 고등교육단계의 대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만족도 전공 선택, 현재 대학에서의 진로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인식도(M=2.86)는 대학에서의 학습과 일과의 연계성 있는 체계구축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능력을 기초로 하여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취업 및 자기개발 역량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취업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 기관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지만 이보다는 취업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양적 질적 평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직 진단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확보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요약하면, 대학은 지식창출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고품질의 기술과 학문을 학습하여,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고 혁신할 수 있는 인재 양성기관이다이 연구를 통하여 고급인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예비인재들이 자기개발을 위한 진로 경로와 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대학의 진로서비스 기관들에 대한 방향 제시에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노경란 외(2008). 직업진로지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이정근(1988). 진로지도의 실제. 서울:성원사.
- 임언, 장홍근, 윤형한(2005). 직업진로교육의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석민(2001). 학교현장에서의 진로교육프로그램개발과 활용. 진로교육연구, 14, 1-16.
- 장창원(2005).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이해. 범한출판사.
- 진미석 외(2002), 신정부 인재정책의 방향과 주요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 윤형한(2003). 성인의 진로개발체제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 한상근(2002), 재학생 희망직업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통계청(2007). 경제활동인구인보
- 최동선(2005). 대학생 진로지도 체제의 혁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Herr, E.L., & Cramer, S.H. (1996).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span: Systematic approaches. NY: Haper Collins.
- Torbert, E.L.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2nd Ed). Boston;Houghton Mifflin.
- Westbrook et al.
- <http://std.kedi.re.kr/index.jsp>. 교육통계연구센터



<Abstract>

## Research of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velopment and their preparation for employment

Ki-Moon Park\* · Kyu-Nyo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the basic data regarding the problems of the employment training activities and their solutions by way of the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awareness of career development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preparation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hat the students themselves make plans for future jobs and their preparation for them, from the start of their university work. This includes taking employment preparation courses as liberal arts requirements. It also needs to have a systematic association with some organizations such as employment preparation centers.

Second, it is necessary that the career portfolios of university students be accepted as materials for objective evaluation so that the companies use them at the time of hiring new employees. If those materials are stored and managed in a database even after their graduation, they will be the strong foundation for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university.

Third, it is necessary that university students establish the orientation of employment training in advance, according to their personal and disciplinary possibilities by diagnosing the level of basic employment ability they possess and that they find out the appropriate programs, both personal and disciplinary, to enforce the abilities they need to develop further.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have an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assess student's basic employment abilities, so as to increase the degree of their employment preparation and its support strategy based on the evaluation.

Fourth, in the higher education level, university students' lower awareness (M=2.86) of their discipline satisfaction, their major selection, and the university's employment opportunity service shows that it is necessary that there be close connection between learning and work. For short-term purpos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must be preceded about the various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and self-development programs offered by the university.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it is urgently necessary that the university ensure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perts for the purpose of diagnosing employment services within the university.

**key words: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velopment, preparation for employment**

---

\* Senior of Research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km7276@hanmail.net

\*\* Correspondence : Senior of Researche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nlee@cnu.ac.kr